

2017년 4월 30일

부활제3주일(가)

제1933호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루카 24.28)

■ 미사 전례

- 제1독서 : 사도 2,14.22ㄴ-33
- 화답송: (악보 참조)
- 제2독서 : 1베르 1,17-21
- 복음환호송: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루카 24,13-35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7:00

오전 9:00(영어미사)

오전 11:00(교중미사)

• 평일미사 : 수·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00

◎ 화답송



성경의 인물 39 회개한 다윗왕

다윗왕은 어느 날 저녁 침대에서 일어나 궁전 옥상을 거닐다 저 멀리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성을 발견했다.

“저 여자가 누구이고?” “예, 저 여성은 바세바이며 그 남편은 우리야 라고 합니다.”

“저 여인을 데려와라.” “예?”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 정을 통했다.

그런데 그만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시켜 우리야를 데려오게 하여 같이 식사를 하면서 흠뻑 취하게 만들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충성스럽고 우직한 부하 우리야를 결국 죽이기 위해 꾀를 냈다.

다윗은 요압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우리야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앞세워 싸우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물러나서 그를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적군이 지키는 데를 골라 우리야를 보내어 결국 죽게 했다.

다윗은 우리야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곡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여인을 궁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다윗은 탐욕에 눈이 멀어 부하를 일부러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했던 것이다. 그러자 하느님은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나단은 다윗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떤 성에 부자와 가난한 이가 살았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암컷 새끼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집의 새끼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다.

“저런 처죽일 놈! 세상에 그런 파렴치한 놈이 있단 말인가? 그런 인정 없는 놈은 본때를 보여주어야 해. 그 양 한마리를 4배로 갚도록 하리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다윗을 보고 나단은 넋지시 말했다.

“그 처죽일 놈이 바로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은 충직한 부하 우리야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야훼 하느님은 마치 대낮처럼 그 일을 온 천하에 비추실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을 것이다. “아니, 감쪽같이 해치운 일을 어떻게 나단이 알 수 있단 말인가?... 저건 분명히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내가 죽일 놈이지...” 다윗왕은 나단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 나단의 충고를 받고 즉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다윗은 신앙으로 무장한 성군이였다. “하느님은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야훼께 죄를 범했으니 우리야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 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단의 말대로 우리야의 아내가 낳은 아이는 중병을 앓게되었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걸친 채 맨땅에 엎드려 밤새워 하느님께 울며 기도했다.

“하느님, 저 어린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 어린것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결국 아이는 7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위대한 성군인 다윗에게선 예상외로 잘못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사람의 능력만 갖고 전쟁을 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나, 자녀들 사이의 불륜 사건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특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사건도 그의 일생 중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삶은 야훼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다. 다윗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늘 회개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또 원한을 쉽게 잊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울왕에게 박해를 받고도 후에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잘 보살펴주었던 도량이 넓은 인물이었다. 늘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뉘우칠 줄 알았던 다윗, 그의 순수하고 담백한 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매력을 준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드물다. (평화신문 2000년 4월 2일 허영엽 신부, ‘성서의 인물’)

성삼소식

LA교구 2차헌금(Cardinal McIntyre Fund for Charity)

- 오늘 미사 중에는 LA교구 “추기경 McIntyre 사회복지후원”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성 요셉 천주교 아버지학교 부부 세미나

- 일시: 4월 30일(일) 13:00-17:30
- 강사: 양 그레고리오 주임 신부님
서진환(이나시오)부제님
- 장소: 성당

성시간

- 일시: 5월 4일(목) 저녁 7:30 미사 후

첫 토요일 신심미사

- 일시: 5월 6일(토) 오전 8:00
※ 미사 전에(7:20am) 묵주기도 있습니다.
- 미사 후에 **합동 셀** 있습니다.

야외미사 2017

- 일시: 5월 7일(일) 오전 10:00(묵주기도 09:30)
- 장소: Crescenta Valley Park(작년과 동일장소)
3901 Dunsmore Ave. La Crescenta, 91214
- 당일복장: 1,3,5구역 - 하얀색 상의
2,4,6구역 - 빨강색 상의
- 길안내 -성당에서 출발기준-
① San Fernando Rd 북쪽 → 2번 Fwy(North)
② 210번 Fwy (West)
③ Pennsylvania Ave에서 내려 Left Turn
④ Honolulu Ave 에서 Right Turn
⑤ Dunsmore Ave 에서 Left Turn
⑥ Parking Lot 주차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가능하면 카풀로 오세요)
- 문의: 총무 홍익표(사도요한) ☎ 818-489-1653
- 야외미사 2부 행사 때 경품으로 사용할 물품과 현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모의 밤 미사 및 행사

- 일시: 5월 3일(수) 저녁 7:30 성당
- ※ 성모 성월(5월1일부터)동안 “**매일 묵주기도**”를 합니다.

월	푸른군대	화	성경 공부반
수	꾸리아	목	성령기도회
금	금요성서반	토	미사 참석자
일	미사 전 · 후 개인별 기도		

*월,화: 오후 7:00 *수, 목, 금, 토: 미사 후

주일학교 · 한국학교 · 청소년



견진 축하합니다.

- 축하식: 4월 30일(일) 11:00 교중미사 중.

조지훈(마태오), 하승호(안드레아), 장 규(엘리아)
강 한(레오), 김준서(벤자민), 이수빈(마리아),
이정민(모니카), 이성애(시나), 박세진(다윗),
양지민(안드레아), Blohm Madison

성삼 한국학교 은총잔치

- 일시: 5월 6일(토) 오전 10:00~12:00
※한국학교 은총잔치에 필요한 물품(의류, 학용품, 잡화, 등)과 기타 도네이션 받습니다.
- 문의: 노 아델리나수녀님 ☎ 323-828-8876
김민경(마리아) ☎ 818-400-7984



동전 모으기(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4월 23일	\$18.35	누계	\$652.13
--------	---------	----	----------

전 례 봉 사	일시		해설	독서	봉헌	평 일	해설		독서
	금주	07:00	박 안토니아	1구역	4구역		수	박 로사	정의의 거울 Pr
		11:00	박 로사	2반	3반		목	이 다니엘라	성령 기도회
	다음주	10:00	한 베드로	1구역 3반	4구역 4반		금	강 올리아나	금요 성경반

중식봉사	금주	2 구역 1,2 반	우거지 갈비탕	다음주	야외미사
------	----	------------	---------	-----	------

우리들의 정성 (2017. 4. 23 현재)

교무금	3,520.00	교무금 / 건축헌금 봉헌(26명)	
주일헌금	2,267.00	강태훈,길선기,김경옥,김교영,김찬수,남신성,민병돈,박경자,박기중,	
건축헌금	70.00	박병호,박정환,박지희,손종수,신규원,심재경,연강선,이길웅,이석환,	
기부금	200.00	이정욱,이혁주,장덕훈,정승재,채민석,최수정,최순범,허일환,	

봉사차례
안내

본당살림